

“필승! 자랑스러운 해군 장교가 되겠습니다”

해군사관후보생 135기 입교식
10주간 군인·장교·해군화 양성교육
군사지식·전투체력·리더십 배양

해군사관학교는 26일 교내 옹포강당에서 제135기 해군사관후보생 입교식을 열었다. 이날 입교한 사관후보생 45명은 지난 18일 입영, 일주일간 가입교 기간을 거쳤다. 이들은 앞으로 10주간 군인화·장교화·해군화 3단계로 구성된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군인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해군 장교로서 군사지식과 전투체력, 리더십을 배양하게 된다.

군인화 과정에서는 올바른 군인정신 함양과 강인한 전투체력 단련을 목표로 산악행군, 전투수영, 해병대 전지훈련, 야전교육 훈련 등을 한다. 이를 통해 후보생들은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도전하며, 필승의 신념과 끈끈한 전우애를 함양한다.

장교화 과정에선 6개 과목으로 구성된 임관종합평가를 준비하며, 실무 기본능력과 확고한 대적관·국가관을 갖춘 초급장교로 거듭난다. 특히 135기를 상징하는 13.5



26일 해군사관학교 옹포강당에서 제135기 해군사관후보생 입교식이 열리고 있다.

부대 제공

km를 달리며 결속력과 단결력을 함양할 계획이다.

마지막 해군화 과정에서는 해군장교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인성과 소양, 해군 자

금심 함양 강연, 인권교육 등이 이뤄진다.

장현철(대령) 생도연대장은 “10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필승의 군인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갖춘 군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135기 사관후보생 모두가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자랑스러운 해군장교로 임관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준 기자

선배 전우 헌신 기념하며 ‘전력 질주’

해병대6여단, 서울수복 기념 마라톤
28.9km·9.28km... 의미 담아 코스 구성

해병대6여단은 26일 백령도에서 서울수복 73주년을 기념하는 마라톤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한 뒤 수도 서울을 탈환한 해병대 선배 전우의 헌신을 기념하고, 서북도서 수호를 위한 결전의지를 다지기 위해 계획됐다.

여단은 1950년 9월 28일 완료된 서울수복작전의 의미를 담아 28.9km·9.28km 등 다양한 코스를 구성했다. 참가 장병들은 수준

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마라톤을 했다.

이날 챌린지에는 악천후를 뚫고 3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장병들은 9·28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코스를 달렸다. 약 3시간 만에 모두가 완주하며 행사는 종료됐다.

여단은 마라톤 전 구간에서 안전통제를 하고, 곳곳에 의무요원을 배치해 장병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졌다.

행사에 참여한 정영웅 중위는 “해병대의 명예로운 역사인 9·28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이번 챌린지를 위해 지난 두 달간 체력 단련에 매진했다”며 “마라톤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강한 해병으로 거듭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원준 기자



26일 해병대6여단 장병들이 9·28 서울수복 의미를 되새기며 마라톤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 한미 동맹 공고히

미8군 한국군지원단
평택기지서 한국어·영어 말하기대회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한지단)은 26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외교부 SOFA 국민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제23회 한국어·영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다.

한국어·영어 말하기대회는 한미 장병들이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 처음 개최됐다.

올해 대회에는 부대별로 열린 예심에 80명이 지원, 이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19명(미군 8명·한국군 8명·생

도 3명)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육군사관학교·3사관학교 생도, 학군사관(ROTC) 후보생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서도 전우애로 뭉친 한미 장병들은 저마다 준비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다. 한미동맹의 역할과 중요성, 주한미군 장병들의 한국 복무경험 등을 서로의 언어로 전해 들으며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다.

이날 영어 말하기 부문 외교부장관상(대상)은 육군사관학교 2학년 김지수 생도가, 한국어 말하기 부문은 미8군사령부 70지원대대 에르셀 나리오 하사가 차지했다.

대회를 준비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박재



26일 주한미군 평택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제23회 한국어·영어 말하기 경연대회에서 장병들이 전우의 발표를 듣고 있다.

부대 제공

욱(대위) 연락장교는 “한국어·영어 말하기 대회는 양국 문화교류를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적 동맹을 넘어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